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한진수**

【요약문】 경제 지식은 개인이 건전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기초 역량이며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북한 이탈주민은 전반적으로 경제 지식의 부족이 심각하다. 스스로 한국에서 경제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과신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재정 적자, 거래의 이득 원리, 인플레이션의 영향, 국내 총생산,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원리, 시장의 역할, 화폐의 기능 등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회귀분석 결과 소득이 높은 사람과 경제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경제 지식 점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점수보다 높으며,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점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경제 지식에서 성별 차이는 없으며, 북한 이탈주민이 받고 있는 각 기관에서의 경제교육이 이들의 경제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있으므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경제교육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경제 지식이 부족하면 서도 경제교육을 원하지 않는 북한 이탈주민을 교육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제어】 북한 이탈주민, 경제 지식, 경제교육

*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도움말을 준 세 분께 감사드린다.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jshahn@ginue.ac.kr).

I. 서론

북한 이탈주민은 계획 경제 체제의 북한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고 정부가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회에서 성장했다. 상품의 가격이 철저히 통제되고 임금과 소득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 체제에 익숙해 있던 이들은 갑자기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두는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종종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 실패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자유 의사결정에 바탕을 두고 이윤 추구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학습해본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을 경제 지식의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경제 역량을 키우는 데 정부와 경제교육 담당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경제교육의 주관 부서인 기획재정부(2017)는 9월 개최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교육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취약·소외계층, 은퇴자·예비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속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이탈주민은 정말로 경제 지식 측면에서 이른바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가? 취약하다면 한국 성인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들에게 이해력이 부족한 경제 개념과 원리는 어떤 것인가? 경제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수준과 교수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이러한 기본 질문에 마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해답과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선입관과 합리적 의심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마침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 지식을 측정하는 조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이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이 한국 성인과 비교할 때 취약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한다. 또한 이들이 시장 경제 원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의 경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한다.

이 연구는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취약 계층 대상 경제

교육 확대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많은 인적·물적·금전적 자원을 경제교육에 투입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욕구와 객관적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경제교육의 효과는 반감된다. 이 연구 결과는 북한 이탈주민의 부족한 경제 지식 내용을 적시하고 이들의 경제 지식 상태를 가늠하게 해줌으로써 수준에 부합하는 교재와 필요성이 시급한 내용으로 구성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을 통해 이 연구가 사용하는 조사 자료의 개요와 경제 지식 측정 도구를 간단히 설명한다. 그 다음 장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을 한국 성인과 비교하고, 개인 특성별로 경제 지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제Ⅳ장에서는 정답률이 특히 낮아 북한 이탈주민의 이해도가 매우 취약한 경제 개념이나 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경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한다.

II. 자료와 표본

1. 표본 개요

KB금융공익재단은 2016년에 한국 성인과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경제 지식수준을 조사했다.¹⁾ 이 조사에 응답한 북한 이탈주민은 206명이며, 한국 성인은 3,000명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비록 많은 수의 표본은 아니지만, 세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분석 가치가 충분하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라는 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둘째, 한국 성인과 동일한 경제 지식 측정 도구를 적용한 덕분에, 두 집단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조사 전문업체인 갤럽의 조사원이 임의로 추출된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북한 이탈주민의 개인 특성, 경제 지식, 기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수집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결과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임의(nonrandom) 표본과 그로 인한 조사 자

1) 북한 이탈주민도 한국 성인에 포함되지만 표현의 간결화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의 ‘한국 성인’은 북한 이탈주민을 제외한, 한국에서 출생한 국민을 의미한다.

료의 편향 문제에서 자유롭다.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표본 수와 비중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여자가 153명으로 남자보다 3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31.6%) 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소득별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월 소득 130만 원 미만(세전 소득 기준)이었으며, 34.0%가 월 130~260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북한 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를 알 수 있다. 월 소득이 39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재학자 또는 졸업자가 4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 이탈주민의 27.2%가 전업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4.8%는 서비스 또는 판매직 종사자였다. 미혼은 40명이었으며 대부분은 기혼이었다.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거주 기간은 평균 7년 11개월이었다.

<표 1> 개인 특성별 표본 수

(단위: 명, %)

특성	사례 수(비중)	특성	사례 수(비중)
성별		연령별	
남자	53(25.7)	19~29세	29(14.1)
여자	153(74.3)	30대	55(26.7)
소득별(월 가계 소득)		40대	65(31.6)
130만 원 미만	105(51.0)	50~64세	43(20.9)
130~260만 원	70(34.0)	65~79세	14(6.8)
260~390만 원	18(8.7)	학력별	
390~600만 원	4(1.9)	고졸 미만	35(17.0)
600만 원 이상	1(0.5)	고졸	89(43.2)
무응답	8(3.9)	전문대 재/졸	27(13.1)
직업별		대학 재/졸	49(23.8)
전문 관리/사무직	24(11.7)	무학/무응답	6(2.9)
서비스/판매직	51(24.8)	혼인 상태별	
농림어업	3(1.5)	미혼	40(19.4)
생산 관련직	35(17.0)	기혼	150(72.8)
전업주부	56(27.2)	사별	8(3.9)
학생	22(10.7)	이혼	5(2.4)
무직/기타	15(7.3)	무응답	3(1.5)

2. 경제 지식 측정 도구

경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는 미국의 경제교육협의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가 미국 성인의 경제 지식을 측정하는 데 쓰고 있는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²⁾ 이 측정 도구는 경제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일반인에게 필요한 경제 개념이나 원리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측정 도구의 타당도(validity)가 높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도 .732로 밝혀져 신뢰도(reliability)도 높다.

<표 2>는 20개 문항을 경제학의 분류 체계에 따라 미시, 거시, 국제, 금융으로 구분하고, 각 문항이 측정하고 있는 핵심 경제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의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미시 경제학 관련 문항이 11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생활 관련 문항이 4개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내용 영역뿐 아니라, 인지 단계로도 구분해볼 수 있다. Bloom(1956)은 교육 목표를 6개의 인지 단계로 구분했지만, 객관식 측정 도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인지 단계는 6개 가운데 지식(knowledge), 이해(comprehension), 적용(application)의 3개로 좁혀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식과 이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둘을 통합하는 추세이다(Walstad and Rebeck, 2016).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20개 문항을 이해 능력과 적용 능력으로 양분했다. 두 영역의 문항 비는 7:3이다.

각 문항은 4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3지 선다형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선택지를 “모르겠다”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응답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추측에 의해 정답을 선택한 결과 경제 지식수준을 왜곡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2) <https://www.councilforeconed.org/news-information/economic-literacy-quiz/>에서 20개 문항을 구할 수 있다.

<표 2> 경제 지식 측정 문항의 분류

문항	핵심 경제 개념	경제학 내용 영역	인지 영역
1	경쟁과 시장의 영향	미시	이해
2	기업가의 의미	미시	이해
3	이자율 변동의 영향	금융	적용
4	소득의 종류	금융	이해
5	국내 총생산의 의미	거시	이해
6	가격 변화의 영향	미시	적용
7	수입 증지의 영향	국제	적용
8	가격 통제의 영향	미시	적용
9	생산의 주체	미시	이해
10	국제 거래의 이득	국제	이해
11	가격 결정	미시	이해
12	최소성과 선택	미시	이해
13	주식 시장의 역할	금융	이해
14	거래의 이득	미시	이해
15	합리적 선택	미시	이해
16	공공재의 특성	미시	이해
17	재정 수지의 의미	거시	이해
18	인플레이션의 영향	거시	적용
19	혁신의 의미	미시	적용
20	화폐의 기능	금융	이해

Ⅲ. 경제 지식의 분석

1. 경제 점수 분포

북한 이탈주민 206명이 경제 지식 측정을 통해 얻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46.77점(표준편차=18.26)이었다. 최고 점수는 85점이며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응답자도 있어 개인별로 경제 지식의 수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0점을 기록한 응답자가 5명(2.4%), 30점 이하인 응답자가 37명(18.0%)이나 되었다. “모르겠다”는 선택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3지 선다형 문항이므로 임의로 답지를

선택할 때 예상 정답률이 33%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 37명의 경제 지식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점수의 최빈값은 25명이 기록한 35점이며, 그 다음으로 45점과 60점을 기록한 북한 이탈주민이 24명씩이다. 평균 점수가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70점 이상을 기록해 한국 성인 못지않은 경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도 28명(13.6%)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국 성인과의 비교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의 평균 점수와 4개 내용 영역별 점수를 한국 성인과 비교한 것이 <표 3>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평균 경제 지식 점수 46.77점은 한국 성인의 62.80보다 16점 정도 낮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바가 아니지만, 조사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거주 기간이 평균적으로 거의 8년에 이르고 있음에도 평균 점수가 여전히 50점에 이르지 못한다는 발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 거주하더라도, 여전히 경제 지식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Jappelli(2010)의 발견과 부합한다.

경제 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한국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지식이 더욱 취약한 영역은 거시 경제학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성인 역시 4개 영역 가운데 거시 경제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북한 이탈주민의 수준은 한국 성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³⁾ 구체적으로 보면, 거시 경제학 5개 문항 가운데 평균 1개만 정답을 선택하는 데 그쳤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거시 경제학 관련 지식이 가장 취약하다고 결론짓는 데 무리가 없다.

<표 3> 내용 영역별 경제 지식 비교

구분	전체	미시	거시	국제	금융
북한 이탈주민(점)	46.77	49.77	21.82	62.90	49.20
한국 성인(점)	62.80	63.10	45.20	80.40	66.20
한국 대비 이탈주민 비(%)	74.47	78.87	48.27	78.23	74.32

3) 한국 성인의 거시 경제학 평균 점수 역시 45.20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거시 문항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4> 인지 영역별 경제 지식 비교

구분	전체	이해 능력	적용 능력
북한 이탈주민(점)	46.77	44.02	53.20
한국 성인(점)	62.80	60.60	67.75
한국 대비 이탈주민 비(%)	74.47	72.64	78.52

<표 4>는 인지 영역별로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이나 한국 성인 모두 이해 능력보다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 성인과 점수를 비교해보면, 북한 이탈주민의 점수가 두 인지 영역 모두에서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이해 능력(72.64%)보다 적용 능력(78.52%)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록했다.

3. 개인 특성별 경제 지식 비교

<표 5>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점수를 개인 특성별로 비교한 것이다. 성별로는 여자의 평균 점수가 남자보다 5점 정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제 지식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0대였다. 경제 지식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65~79세의 노년층으로서 이들은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점수의 표준편차도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 경제 지식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에도 학력과 경제 지식수준 사이에 밀접한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표 5>는 보여준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학력은 한국에서 새로운 학위를 습득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에 있을 때의 것이다.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지식을 북한 학교에서 학습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학력이 시장 경제의 지식 점수와 관련 있다는 조사 결과로부터, 학력은 학교에서의 학습뿐 아니라 학교 졸업 이후와 한국 생활에서의 경제 지식 습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표 5> 특성별 경제 지식

특성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t, F (p)
성별					
남자	43.10	19.29	0	85	1.706 (.090)
여자	48.04	17.78	0	85	
연령별					
19~29세	47.09	18.54	0	75	2.473 (.046)
30대	44.93	17.90	0	75	
40대	51.46	17.70	15	85	
50~64세	45.52	16.01	0	75	
65~79세	36.69	23.36	5	80	
학력별					
고졸 미만	43.44	22.60	0	85	3.459 (.009)
고등학교 졸업	44.22	16.22	0	85	
전문대학교 재학/졸업	47.92	18.05	0	85	
대학교 재학/졸업	54.38	15.62	10	80	
무학/무응답	36.95	25.25	10	70	
소득별(월 가계 소득)					
130만 원 미만	43.27	17.97	0	85	5.907 (.001)
130~260만 원	50.35	16.71	15	85	
260~390만 원	58.48	9.79	40	70	
390만 원 이상	56.62	9.11	45	70	
혼인 상태별					
미혼	43.88	16.66	0	75	1.113 (.342)
기혼	47.30	17.83	0	85	
사별	54.68	20.09	15	80	
이혼	50.32	16.06	35	75	
무응답	33.84	45.71	0	85	
직업별					
전문 관리직/사무직	52.06	17.22	15	80	1.257 (.279)
서비스/판매직	46.50	14.56	25	85	
농림어업	42.82	30.95	5	65	
생산 관련직	51.19	18.82	0	75	
전업주부	44.59	17.18	0	75	
학생	45.80	18.96	0	75	
무직/기타	39.38	27.54	0	85	

소득에 따라서도 경제 지식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과 경제 지식 점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존재하는데 월 소득이 260~390만 원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 이상의 고소득자에게서는 유의미한 경제 점수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인 응답자보다 결혼 경험이 있는(기혼, 사별, 이혼) 응답자가 더 높은 경제 지식 점수를 얻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는 전문 관리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생산직 종사자의 경제 지식수준이 높은 반면에, 농림어업 종사자와 전업주부의 경제 지식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직업별 경제 점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 등급

경제 지식을 조사하면서 북한 이탈주민에게 자신의 경제 지식의 위치를 평가해보도록 했다. “만약 경제 지식 시험을 본다면 자신은 상위 몇 %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대해서, 상위 10% 이내에 든다고 응답한 사람은 최상위권, 상위 10~30%는 상위권, 상위 31~70%는 중위권, 나머지 30%는 하위권으로 분류했다.

주관적 평가 등급과 객관적 평가 등급 사이의 상관관계나 일치 정도를 분석해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표 6> 참고).⁴⁾ 북한 이탈주민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경제 지식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최상위권에는 10%에 해당하는 21명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자신이 최상위권이라고 응답한 북한 이탈주민은 5명, 2.51%에 불과했다. 상위권이라는 응답자도 기준 인원 41명의 절반 정도인 18명, 9.05%에 그쳤다.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겨우 11.56%밖에 없다는 뜻이다.

중위권 역시 기준에 미달했다. 반면에 경제 지식이 부족한 하위 30%에 해당하는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북한 이탈주민은 105명으로서 52.76%나 되었다. 그만큼 북한 이탈주민이 자신의 경제 지식에 대해서 자신감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6>에서 대각선 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관적 등급과 객관적 등급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최상위권의 경우에 한 명도 없었으며, 전체 199명 가운데 67명, 33.67%만이 자신의 경제 지식수준을 옳게 판단하고 있었다. 대각선 셀보다 아래에 위치한 셀은 자신의 경제 지식수준을 과소 평가하는 사례들인

4) 단, 206명 가운데 7명이 주관적 평가 등급 항목에 응답을 거부함으로써 분석에 포함된 표본 수는 199명이다.

<표 6>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 등급 분포

(단위: 명, %)

구분		객관적 평가 등급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가로 합
주관적 평가 등급	최상위권	0 (0.00)	0 (0.00)	1 (0.50)	4 (2.01)	5 (2.51)
	상위권	1 (0.50)	3 (1.51)	11 (5.53)	3 (1.51)	18 (9.05)
	중위권	15 (7.54)	15 (7.54)	25 (12.56)	16 (8.04)	71 (35.68)
	하위권	11 (5.53)	17 (8.54)	38 (19.10)	39 (19.60)	105 (52.76)
	세로 합	27 (13.57)	35 (17.59)	75 (37.69)	62 (31.16)	199 (100.00)

주: 객관적 평가 등급의 경우 동점자 때문에 해당 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음.

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97명으로서 거의 절반(48.74%)에 이른다. 반면에 자신의 객관적 경제 지식 등급보다 스스로 경제 지식을 과대 평가하는 사람은 35명(17.59%)으로 조사되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 지식의 경우에도 과신 현상이 보편적이다(예를 들어 OECD, 2005; Agnew and Szykman, 2005; Lusardi, 2011; Bucher-Koenen et al., 2012).⁵⁾ 그럼에도 <표 6>과 같이 과대 평가자보다 과소 평가자의 비율이 두 배 이상이라는 사실은 자신의 경제 지식에 대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신감이 그만큼 낮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IV. 문항 및 결정 요인 분석

1. 이해도가 낮은 문항 분석

문항별로 북한 이탈주민의 정답률이 한국 성인의 정답률보다 높은 문항은 한 개

5) 예를 들어 Lusardi(2011)는 미국 응답자의 70%가 자신의 점수를 7점 가운데 4점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을 묻는 항목에서 정답을 선택한 표본은 30%에 불과했다고 보고했다. 이윤호(2018)는 우리나라 대학생에서 금융 이해력의 과신 현상을 발견했다.

도 없다. 다만 근로 소득이 한 국가의 소득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두 집단 사이의 정답률 차이가 없다. 비록 체계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를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로서 경험한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북한 이탈주민도 정답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정답률에서 30%p 이상 차이 나는 문항이 2개 있다. 북한 이탈주민이 전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해도가 심각하게 낮은 경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중앙정부의 한 해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그 차이가 재정 적자임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겨우 31.2%만 정답을 선택하는 데 그쳐 한국 성인의 정답률과 무려 39.7%p의 격차를 보였다.

한국 성인에게 재정 적자는 어렵지 않은 개념이다. 북한 이탈주민이 이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북한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이다. 실질적으로는 공장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재정에 필요한 돈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 일반인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 재산세 같은 세금을 명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북한 이탈주민에게 세금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은 자연스럽다. 이뿐 아니라 국가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으므로 일반인은 재정 수지에 대해 관심은 물론이고 재정 수지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이탈주민의 33.1%는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을 국가 부채라고 응답함으로써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 수지는 한 해의 국가 살림살이에 대한 것으로서 유량(flow) 개념이며, 정부 빚이 누적된 국가 부채는 저장(stock)이다.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전혀 무관한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할 개념이다. 국가가 빚을 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국가 부채에 대한 소식을 북한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정답률이 한국 성인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두 번째 문항은 거래의 이득에 대한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거래하면 양쪽 모두 거래에서 이득을 얻는다.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빌리는 경우에도 이 경제 원리는 변함없이 적용된다. 아파트를 빌린 사람은 거주할 공간을 얻어서, 아파트를 빌려준 사람은 수익을 얻어서 이득을 얻는다. 그런데 아파트를 빌리는 사람은 이 거래에서 피해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파트를 빌리는 사람은 집이 없어 불쌍하고 집주인에 비해서 항상 열등한 위치에 놓여 아까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아파트를 빌리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빌리는 사람도 분명히 혜택을 본다. 더욱이 자신의 집을 보유하면서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파트를 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아파트를 빌리는 사람이 피해자이며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은 오개념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30.3%만이 거래에서 양자 모두 혜택을 본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절반에 해당하는 49.5%가 아파트 주인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했다. 상품을 판 사람,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 아파트를 빌려주는 집주인만 거래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은 오류이다. 거래를 통해서 상호 이득을 얻는다는 경제 원리를 북한 이탈주민이 학습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20개 가운데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으로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부와 소득의 재분배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일부 집단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반면 이득을 얻는 집단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집단 간 갈등과 부동산 투기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얻는 집단과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겨우 16.4%에 불과했다. 오개념을 보면, 고정 금리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34.4%나 되었으며, 아예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27.9%였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득, 돈을 빌리는 사람은 항상 피해자이자 손해를 본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가격이 철저히 통제되는 계획 경제 체제에서 명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자본주의의 중요한 현상인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부의 재분배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임에 분명하다.

이 외에도 정답률이 33%에도 이르지 못해, 북한 이탈주민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경제 개념은 국내 총생산(GDP),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주식) 시장의 역할, 화폐의 기능이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공급하는 경우 이들 지식이나 원리를 포함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경제 개념이나 원리는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일상 경제생활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기도 하다.

2. 경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경제 지식 점수(100점 만점)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제 지식 관련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변수들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개인 특성 자료를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우선 경제 지식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변수를 더미로 포함한다. 연구 대상이나 지식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경제 지식수준이 높다(Siegfried, 1979; Ferber et al., 1983; Lumsden and Scott, 1987; Heath, 1989; Anderson et al., 1994; Gleason and van Scyoc, 1995; Tabesh and Schultz, 2007; Brückner et al., 2015). 반면에 Buckles and Freeman(1983), Hirschfeld et al.(1995), Koshal et al.(2008) 등은 경제 지식에서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경제 지식은 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경험이나 직업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경제 지식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예를 들어 한진수, 2019). 단, <표 5>에서 보았듯이 40대를 정점으로 경제 점수가 하락함으로써, 연령과 경제 점수 사이에 2차 함수 형태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에 따라 연령 변수 외에 연령의 제곱 변수를 추가한다.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은 모든 분야의 지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연구에서도 설명변수에 포함하며 두 변수의 추정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아직 고려한 바 없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이 여럿 있다. 우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교육을 받기를 원하는지의 여부이다. 교육에 대한 욕구가 지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그리고 경제교육 경험을 설명변수로 추가한다.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교육 안에는 한국에서의 경제생활이나 한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단체가 제공하는 경제교육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교육 경험이 최근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의 경제 지식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한국 거주 기간도 경제 지식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지식이 학습과 경험의 산물이라면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생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이 향상될 것이다(McCall et al., 1988; Hilgert et al., 2003). 반면에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장기간 생활과 경험이 시장 경제의 지식 축적에 방해가 되어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가설도 가능하다(Jappelli, 2010; Kim et al., 2017).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거주 기간을 설명변수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설명변수에 포함한다. 평소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독서, 기사 읽기, 경험 등을 통해 경제 지식 습득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언급한 설명변수의 정의와 값은 다음과 같다.

- GENDER* : 성별(남자=1, 여자=0)
AGE : 연령(조사 당시 실제 나이)
*AGE*² : 연령의 제곱/100
EDU : 학력(무학/무응답=1, 고졸 미만=2, 고졸=3, 전문대 재학/졸업=4, 대학 재학/졸업=5)
INCOME : 가계 월 총소득(130만 원 미만=1, 130~260만 원=2, 260~390만 원=3, 390만 원 이상=4)
WANT :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교육을 받고 싶은지 여부(받고 싶음=1, 아님=0)
EXP : 최근 5년 이내에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있음=1, 없음=0)
KORES : 한국 거주 기간(3년 미만=1, 3~7년=2, 7~11년=3, 11년 이상=4)
CONC : 평소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도(관심 있음=1, 관심 없음=0)

<표 7>은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소득이다. 기본 모형 1에 의하면 소득이 한 단계 높아짐에 따라 경제 지식 점수가 4.9점 상승한다. 소득과 학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나, 고소득자가 시장 경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⁶⁾

경제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도 개인의 경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제 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 점수가 5.0 점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 지식수준에서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나 단체가 북한 이탈주민에게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경제 지식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경제교육 제공기관은 북한 이탈주민에게 단순히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경제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경제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교육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제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7> 경제 지식 추정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8.404(14.527)	17.606(10.892)	17.899(11.619)	32.967(5.831)***
<i>GENDER</i>	-2.266(2.817)	-	-2.640(2.747)	-3.572(2.684)
<i>AGE</i>	.806(.548)	.743(.510)	.627(.523)	-.145(.088)
<i>AGE</i> ²	-1.034(.589)*	-.958(.550)*	-.843(.563)	-
<i>EDU</i>	1.772(1.198)	-	1.448(1.158)	1.387(1.161)
<i>INCOME</i>	4.910(1.649)***	4.857(1.540)***	4.563(1.609)***	4.869(1.601)***
<i>WANT</i>	4.960(2.894)*	6.159(2.811)**	5.226(2.866)*	4.882(2.866)*
<i>EXP</i>	-1.243(2.831)	-	-	-
<i>KORES</i>	1.408(1.319)	-	-	-
<i>CONC</i>	5.573(3.661) ⁰	6.381(3.561)*	5.411(3.617)	7.000(3.469)**
<i>Adj. R</i> ²	.165	.164	.168	.162
<i>F</i>	5.277***	8.714***	6.648***	7.334***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1$, ** $p < 0.05$, *** $p < 0.01$ 임.

- 6) 경제 지식수준과 소득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 경제 공부에 관심을 가진 결과 높은 점수를 얻었을 수 있다. 반대로 경제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소득을 버는 능력이나 직업을 보유한 결과일 수 있다.

추정 모형에 따라서 유의미성이 달라지는 변수들이 있다. 연령의 경우 제곱 변수의 계수가 음으로 추정되어(모형 1과 모형 2) 연령과 경제 점수 사이에 2차 함수 형태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평소 경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점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4~7.0점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모형 2와 모형 4).

반면에 몇 개 요인은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경제 지식 점수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5>에서 여자의 평균 점수가 남자보다 5점 높았지만 다른 요인들로 통제된 후에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학력이 경제 지식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 거주 기간도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도 경제 지식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교육을 받았지만 배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교육 내용 자체가 이번 조사에 적용된 경제 지식 측정 문항의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나 내용 자체가 부실한 탓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느 원인(들)이 핵심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북한 이탈주민이 받고 있는 경제교육이 경제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확실하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경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취약 계층 가운데 하나인 북한 이탈주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을 조사한 자료를 통해 이들을 취약 계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한국 성인 대비 경제 지식의 결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항 분석을 통해 세금과 재정, 거래의 이득 원리, 인플레이션의 영향, 국내 총생산,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시장의 역할, 화폐의 기능 등의 경제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북한 이탈주민은 한국에서의 경제생활을 하는 데 필요

한 경제 지식에 대해서 자신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 지식은 단순히 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을 충분히 하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등 바람직한 경제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Hilgert et al., 2003; Collins et al., 2009; Gale and Levine, 2011). 경제 지식은 바람직한 경제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시장 경제에 적합한 시민이 되도록 이끈다. 선진국이 자국민의 경제 지식 함양을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을 제고하는 일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경제 지식의 향상은 시장 경제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하루속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경제교육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교육을 이수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교육의 효과가 미흡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의 20.8%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의 44.7%만이 자신의 경제 의사결정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자신의 자산이나 부채를 고려할 때 현재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북한 이탈주민은 겨우 6.7%에 그쳤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한 소비(유효 응답자의 21.5%), 투자 실패(7.6%), 경제활동의 부재(11.4%) 등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현황과 시장 경제에의 적응 어려움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다행히도 북한 이탈주민의 68.0%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했다. 많은 이들이 경제 역량 강화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교육을 수요하고 있다.

이제 경제교육의 공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이 시장 경제의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제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경제교육을 원하지 않는 북한 이탈주민을 자발적으로 교육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2017), 취약·소외계층 경제교육 강화 등 사람 중심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보도자료(9. 6.)
- 이윤호(2018),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서의 과신, *시민교육연구*, 50(2), 137-157.
- 한진수(2019), 경제 이해력 평가를 통해 본 성별 차이, *경제교육연구*, 26(2), 159-181.
- Agnew, J. and L. Szykman (2005), Asset Allocation and Information Overload: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Display, Asset Choice and Investor Experience, *Journal of Behavioral Finance*, 6(2), 57-70.
- Anderson, G., D. Benjamin, and M. A. Fuss (1994), The Determinants of Success in University Introductory Economics Course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5(2), 99-119.
- Bloom, B. S.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I: Cognitive Domain*, McKay.
- Brückner, S., M. Förster, O. Zlatkin-Troitschanskaia, R. Happ, W. B. Walstad, M. Yamaoka, and T. Asano (2015), Gender Effects in Assessment of Econom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Differences Among Undergraduate Business and Economics Students in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90(4), 503-518.
- Bucher-Koenen, T., A. Lusardi, R. Alessie, and M. van Rooji (2012), How Financially Literate Are Women? Some New Perspectives on the Gender Gap, Network for Studies on Pensions, Aging and Retirement Panel Paper 31.
- Buckles, S. and V. Freeman (1983), Male-Female Differences in the Stock and Flow of Economic Knowled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2), 355-358.
- Collins, J. M., R. N. Gorey, M. D. Schmeiser, C. A. Baker, and D. Ziegler (2009), Building Indicators Measure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Anne E. Casey Foundation.
- Ferber, M. A., B. G. Birnbaum, and C. A. Green (1983), Gender Differences in Economic Knowledge: A Reevaluation of the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4(2), 24-37.
- Gale, W. and R. Levine (2011), Financial Literacy: What Works? How Could it be More

- Effectiv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Boston College Working Paper.
- Gleason, J. and L. J. van Scyoc (1995), A Report on the Economic Literacy of Adult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6(3), 203-210.
- Heath, J. A. (1989), An Econometric Model of the Role of Gender in Economic Edu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9(2), 226-230.
- Hilgert, M. A., J. M. Hogarth, S. G. Beverly (2003),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Behavior, *Federal Reserve Bulletin*, 89(7), 309-322.
- Hirschfeld, M., R. L. Moore, and E. Brown (1995), Exploring the Gender Gap on the GRE Subject Test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6(1), 3-15.
- Jappelli, T. (2010), Economic Literac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 Journal*, 120(548), F429-F451.
- Kim, M., S. Choi, and J. Lee (2017), Economic System and Financial Literacy: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53(11), 2505-2527.
- Koshal, R. K., A. K. Gupta, A. Goyal, and V. N. Choudhary (2008), Assessing Economic Literacy of Indian MBA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Business*, 23(2), 43-52.
- Lumsden, K. G. and A. Scott (1987), The Economics Student Reexamined: Male-Female Differences in Comprehensio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8(4), 365-375.
- Lusardi, A. (2011a), Americans' Financial Capability, NBER Working Paper 17103.
- McCall, Morgan W., Jr., Michael M. Lombardo, and Ann M. Morrison (1988), *The Lessons of Experience*, New York: The Free Press.
- OECD (2005),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Paris: OECD.
- Siegfried, J. J. (1979), Male-Female Differences in Education: A Survey, *Journal of Economics Education*, 10(2), 1-11.
- Tabesh, H. and B. L. Schultz (2007), Determinants of High School Economic Literacy: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7(6), 28-34.
- Walstad, W. B. and K. Rebeck (2016), *Basic Finance Test: Examiner's Manual*,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Abstract>

Economic Knowledge of North Korean Defectors

Jinsoo Hahn*

Economic knowledge is a fundamental competency that an individual has to possess to maintain sound daily economic activities, with growing value in a modern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economic knowledg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is a salient lack of economic knowledg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particular, they need to understand economic concepts such as fiscal deficit and national debt, gains from trade, effects of inflation, gross domestic product, scarcity and rational choice, the role of markets, and functions of money.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come and the desire for economic education are significant factors to predict economic knowledg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ose who are interested in economic issues also have higher economic knowledge scor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evidence for gender difference. Economic education programs currently provid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fail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economic knowledge. As many North Korean defectors demand economic education opportunities, the focus should be on supplying target-specific programs in order for them to overcome their weak areas of knowledge. Working incentives are also needed to attract North Korean defectors who lack economic knowledge but do not want economic education.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knowledge, Economic education

원고접수: 2021년 03월 10일

심사일: 2021년 03월 27일 ~ 2021년 04월 16일

게재확정: 2021년 04월 17일

*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shahn@ginue.ac.kr).